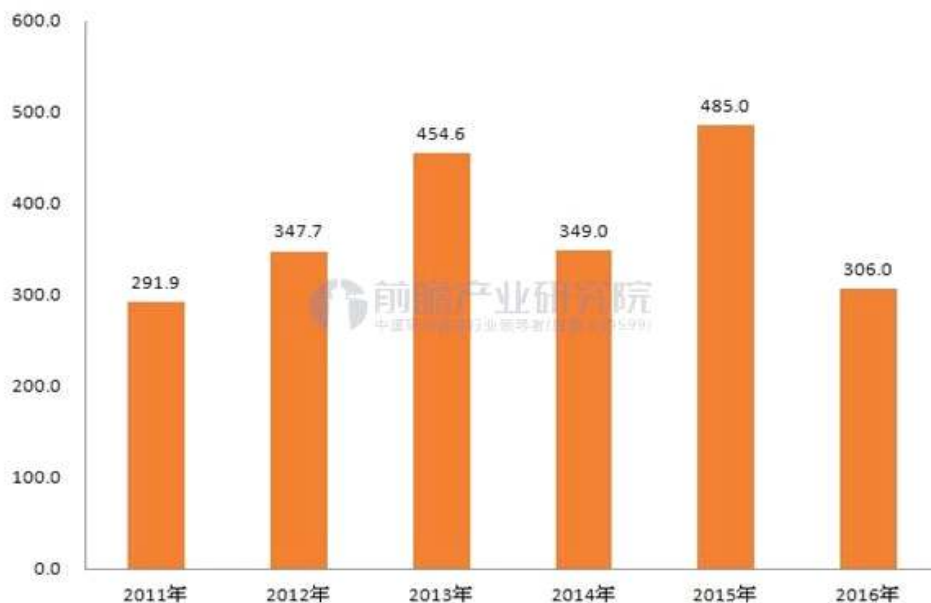


중국 수입산 식용 설탕에 대하여 보장 조치 실시

aT청두지사

중국 세관정보망 (www.haiguan.info)에 의하면 중국의 4월 설탕 수입량은 19만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4.1% 하락, 전월대비 36.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수입액은 7.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9.3% 증가, 전월대비 28.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설탕 수입 평균 가격은 톤당 3719.8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56.4% 증가, 전월대비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11-2016 중국 설탕 수입량(단위 : 만톤)〉



상무부가 발표한 《关于对进口食糖采取保障措施的公告》 수입식용설탕 보장조치 실시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작년 9월 22일부터 실시한 수입산 식용 설탕제품에 대해 보장조치 실시를 위한 사전 조사 결과 설탕 수입량의 증가로 인해 중국 설탕 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는 상무부의 보장 조치 실시 건의를 고려하여 2017년 5월 22일부터 수입 설탕제품에 대하여 보장 조치를 실행하기로 결정함.

2017년 5월 22일부터 2020년 5월 21일 기간, 관세 할당 이외 수입 설탕제품에 대해 보장 조치 (보장조치관세세금=관세납세가격×보장조치관세세율) 실시하여 정책 실행 기간 점진적으로 제한을 완화하기로 함.

2017년 5월 22~2018년 5월 21일 까지 보장조치관세는 45%이며, 2018년 5월22~2019년5월21일까지는 40%, 2019년 5월 22일~2020년 5월 21일까지는 35% 임.

2017년 중국 설탕 수입관세 쿼터물량은 194.5만 톤이고, 2016년 총 수입량이 306.2만톤이었음을 감안하면, 수입량의 1/3이 넘는 물량에 대해 보장 조치 관세를 징수하게 되어 설탕 수입에 큰 영향 미칠 것임.

단 개발도상국 제품의 경우 수입비중이 3%이하 이며, 이들 국가의 총 수입비중이 9%를 초과하지 않으면 보장조치를 실시하지 않음.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쿠바, 호주, 한국, 태국, 과테말라는 2016년 중국 설탕 수입량이 가장 많으며 총 수입량의 98.7% 차지함. 이들 국가는 보장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개발도상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대중국 식용설탕 수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2016 중국의 설탕 수입 상위 6개국 수입 현황 >

국가	수입량(톤)	비중(%)
브라질	1,988,889.6	65
쿠바	436,509.2	14.3
오스트레일리아	197,273.2	6.4
한국	196,432.5	6.4
태국	179,554.3	5.9
과테말라	21,801.0	0.7
연간 수입총량	3,061,947.4	-

자료원 : 海关信息网 (www.haiguan.info) , 前瞻网, 舒畅, aT청뚜지사